

환각의 입문

(본드 흡입)

습관성 약물의 남용(濫用)이 문제되는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우리는 별로 의식하지 못 하는 사이에 많은 종류의 습관성 약물을 남용한다. 대표적으로 알코올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너무 많이 마시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보통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우리는 술집에서 거나하게 취한 후 ‘쓸데없는 객기’를 부리는 술꾼들을 가끔 보기도 하고, 또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이라면 과음 후 ‘필름이 끊어진 상태’에서 누구와 다투었는지, 어떻게 집에 왔는지 기억해 내지 못하는 일을 어쩌다 한 번씩은 경험하기도 한다.

습관적인 킁연자라면 두어 시간만 담배를 피우지 못 하면 “피우고 싶다”는 강한 열망에 사로잡히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초조감, 긴장감을 느끼고 때로는 졸리고 하품이 계속 나는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하루에 커피를 서너 잔 이상 마시지 않으면 일을 하지 못 하는 사람들, 콜라를 꼭 마셔야만 비로소 갈증이 해소되는 사람들은 카페인(caffeine)이라는 중추신경 흥분제에 의존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놀라운 것은 습관성 약물인 카페인을 함유한 드링크제가 유명한 제약회사에서 피로회복제로 대량 생산되고 있고, “오늘의 피로는 오늘 풀라!”고 권하는 인간미 넘치는 광고 덕택에 그 판매의 신장세가 꺾일 줄 모른다는 점이다.

이렇듯 습관성을 유발하거나 때때로 금단 증상(禁斷症狀)을 일으키는 약물들이 마약류를 제외하고도 우리 주변에는 사실상 널려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런 약물들이 법적으로 규제를 받지 않는 이유는 단지 극단적인 과량을 복용하지 않는 한 심한 정신과적 문제나 행동 상의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근래 몇 년에 걸쳐 청소년들 사이에 만연하여 커다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왔던 본드나 부탄가스는 흡입 후 환각이나 망상 등의 심각한 정신장애가 뒤따른다. 그것은 또 곧바로 범죄와 직결되어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권익과 생명도 직접 위협할 수 있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 신경 정신과 진료실에서는 가끔은 TV에서 보도되는 것과 똑같은 사건을 직접 체험하기도 한다.

고등학교 2학년생인 C군은 학교와 집안에서 적응하지 못 하여 늘 불안해하고 부모에게 죄책감을 갖고 있었다. 그는 불안하고 초조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도 많았지만 전혀 불량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학생이었다.

그러나 그는 친구가 권하는 딱 한 번의 본드 흡입으로 온갖 걱정에서부터 해방되면서, 병적인 만용으로 길가는 사람을 위협, 돈을 갈취하고 폭행을 가한 후 경찰에 연행되었다.

그는 부모님이 정신 병원에서 치료받게 한다는 조건으로 구속을 면했지만 강제로 입원 당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런가 하면 본드에 취해 있는 동안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환각적인 경험을 하는 환자도 있다.

몇 년 전에 치료했던 한 고등학생은 “본드를 불기만 하면 누구나 아는 유명한 여배우를 눈앞에 불러와서 원하는 대로 데리고 놀 수 있다”고 고백한 적이 있었다. 또 나이가 좀 어린 어떤 중학생은 “마징가 제트를 눈앞에 불러내 옆집이나 높은 건물을 마음대로 공격할 수 있어 속이 후련해진다”고 하였다. 환상적인 체험이 눈앞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똑똑히 보인다고 하니 참으로 대단한 유혹이 아닐 수 없겠다.

그러나 본드 등의 유기화합물(有機化合物)을 습관적으로 흡입하는 경우에 그것은 뇌 세포 단백질이나 간장 등 주요 장기를 파괴하여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사람을 폐인으로 만들어 버린다. 실제로 만성 알코올 중독자는 15년 내지 20년 동안에 걸쳐 뇌와 간이 파괴되지만 본드나 부탄가스를 상용(常用)하는 경우에는 반년이 채 안 가서 인격의 황폐화까지도 올 수도 있다.

모든 약물 의존증 환자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경우에도 그는 게으르고 양심이 없고 비도덕적이 되며, 타인의 안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후안무치(厚顏無恥)한 부류의 인간으로 전락하게 된다. 게다가 그들 중 상당수는 나이가 들면서 마리화나(대마초)나 중추 신경 흥분제인 필로폰, 코카인 등의 약물을 접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환각제로 분류되는 심각한 마약에 탐닉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제 청소년기에 들어가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그들이 이런 불법적이고 인간 파괴적인 약물에 입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관심과 인격 수양에 관한 지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